

동양미래대학교

2021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1년 1월 6일(수) 11:00 ~ 12:00	회의장소	1호관(대학본부) 8층 회의실
참 석 자	○ 참석 의원(7명) 오상조, 하병황, 조강홍, 나형석, 양낙규, 김송희, 박혜윤 ○ 대학 참석자(3명) 장민석(사무부처장), 안윤모(기획예산팀장), 최승우(기획예산담당)		
회의안건	○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 심의		

[회의내용]

1. 개회선언

- 위원장 : 위원 10명 중 7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함

2. 안건 심의

□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 심의

1) 의안 설명

- 위원장이 배부자료에 의거하여 일반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금을 11만원을 인하하고 수업료는 동결하는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을 설명함. 또한,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에는 1학점당 등록금을 11만원으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을 자세히 설명함

2) 심의 내용

- 2021학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시간제 등록생에 대한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하병황 위원)
- 답변(위원장) : 등록금은 감소하고 재정 지출은 증가하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을 정원 외로 모집하여 학점은행제 학생으로 등록한 후에 우리 대학 학생으로 유치하려는 목적임을 설명함
- 대학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1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있는지를 문의함 (조강홍 위원)
- 답변(위원장) : 코로나19 등의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으며, 등록금 인상률도 법정 상한 1.2%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함. 또한 시간제 등록생의 1학점당 등록금 책정(안)은 국립대학 수준이며 계열 구분 없이 11만원으로 책정함을

설명함

- 코로나19로 인한 교내장학금 증액과 관련 국고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양낙규 위원)
- 답변(위원장) : 교내 장학금은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 85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증가는 2020학년도 기존 교내 장학금 예산 5,820백만원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으로 '재난지원 특별장학금(코로나19)' 840백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이었음을 설명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배정받은 국고 지원금 626백만원은 해당 사업에 따라 원격수업, 실험실습 기자재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함

3) 심의 결과

- 대학 재정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부모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과 코로나19 등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재학생의 경우에는 2021학년도 입학금 11만원 인하 및 수업료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에는 1학점당 등록금을 계열 구분 없이 11만원으로 하는 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전 위원의 이견이 없음을 위원장이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3. 폐회 선언

- 위원장 : 추가 논의사항에 대해 질의, 요청하고 추가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포함

2021. 1. 6.

이에 서명 날인한다.

동양미래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오상준 (인)	
위원	하병황 (인)	조강홍 (인)
	나형석 (인)	김재영 (인)
	이희진 (인)	정현옥 (인)
	양낙규 (인)	김송희 (인)
	박혜윤 (인)	